

사회

“시설 부족, 학습권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”

전남대생 초유의 집단소송

생명과학부 252명...적정공간 30% 불과

전남대측 “교과부 기준 충족...문제 없다”

전남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252명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
한 강의실, 실험실, 자치공간 등이 적정 공간 1천660㎡의 30%에 불과하다

서 여러 차례 건의와 총장 면담 등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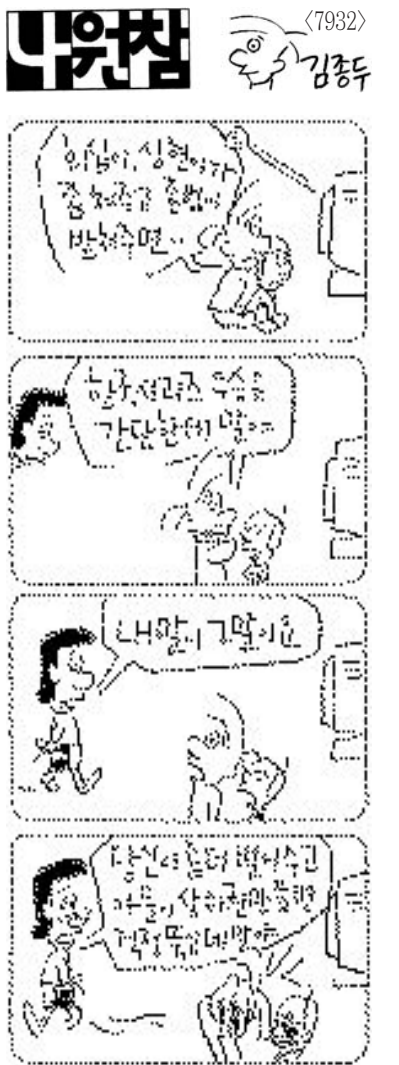
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.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실험 기자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학습권 침해

신종플루 다시 기승

광주·전남 확진환자 나흘동안 291명 늘어

환절기를 맞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광주·전남 신종플루 환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.

상이 학생으로 밝혀져 교육 당국의 철저한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.



전남, 범죄 많은 곳 CCTV 적다

국회 행안위 국감

치안 수요 고려 안해

전남지역 시·군의 방범용 CCTV가 범죄발생 건수 등 치안실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.

특히 CCTV 설치 대수와 지역별 범죄 발생건수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70대 독감백신 맞고 사망...전남선 처음

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

전남에서 계절 인플루엔자(계절 독감) 백신을 맞은 70대 노인 1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.



전남 모 보건소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한 70대 남성이 이틀날 숨지는 등 전국에서 백신 예방접종 직후 숨지는 사례가 잇따라 접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.

는 뇌출혈로 사망했으며, 계절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보고된 중대 이상반응은 총 11건으로 늘었다.

들 11건의 이상반응이 모두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.

할 때 지체처럼 노인 80%가 독감백신을 접종 받는 상황에서는 백신접종과 사망이 우연히 시기가 겹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

전남 독극물 사건 속출

잔여농약 특별관리 시급

최근 전남지역에서 농약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에 의한 사상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잔여농약 특별관리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

책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밝혔다.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독극물로 인한 사상 사건이 5건 발생해 6명이 사망

해경, 중국 어선 11척 나포

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6~19일 서해상에서 중국 저인망 불법 조업 특별단속에 나서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하고 중국 선원 96명을 체포

애완견 데리고 공원 산책 '역살잡이'

○광주의 한 주택가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 주인과 주민이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다가 말리다가 개 주인 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.

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Academy (한빛고시학원) featuring a 79-hour public employee exam preparation course. The ad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content, location, and contact information.